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송·산업·생활 등 6개 분야 16개 부문 강화된 저감대책 추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지원 등 시민동참 캠페인...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광주시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최근 3년간 12~3월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계절관리기간에 집중 8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달간 광주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전년도 대비 8%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6개 부문 주요과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취약지역 정정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감시 ▲안전시민실천본부 운영관련 푸른하늘리더단 운영 ▲미세먼지 집중도로 도로정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미세먼지 관리강화 등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주요도로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운행제한 및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조치 희망 신청한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치부착불가차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취약지역 정정관리 시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월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해 미세먼지

쉽터, 스마트 에어샤워실 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체 어린이,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서구 금호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 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는 노면정소차 및 분진흡입차 등 31대를 투입해 평시에는 일 2회 이상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하루 3회 이상 도로정소를 한다.

시민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안전시민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 45명을 활용해 5개 권역별로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홍보용 마스크 지원 및 전단지 배부 등 '푸른하늘을 함께 만들어' 시민동참 캠페인을 펼친다.

기타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격주 이행상황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매체홍보 및 지정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나혜전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광주의 경우 최근 국내 배출감축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감소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실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철도공사 '푸른 녹동마을 만들기' 환경정비 활동



광주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은 설 연휴 기간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주변 생활도로 및 천변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공사는 용산차량기지 인근 거주민 및 기업체들과 함께 '푸른 녹동마을 상생마을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비롯한 마을 발전 현안 사업 참여, 주민 편의 향상 사업 개발 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8만원 지원

광주시 18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광주시는 "취약계층 장애인의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만 12세~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 1~2009년 12월 31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치구별 접수 현황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 중 수급 자격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며, 4월부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

단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설은 70여개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대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시설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 시설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또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자 지원연령 제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하고 복수강좌 수강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신동하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스포츠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물 절약, 빗물 사용부터 시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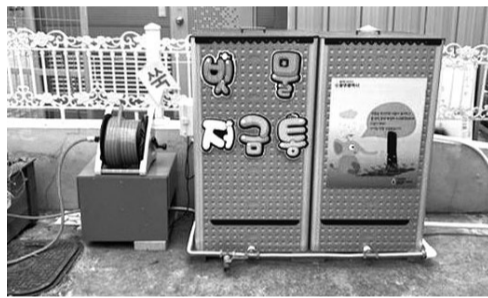
광주시 '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

최대 1천만원...3월2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14일 "버려지는 빗물을 다시 이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빗물저금통'(사진)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 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 면적 5000㎡ 미만(신축 제외) 학교이며,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귀중한 수자원을 활용해 수

돗물 사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단독주택, 어린이집 등 26곳에 1억원을 지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3~4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송진남 광주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기치 않은 가뭄과 홍수가 반복돼 빗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빗물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빗물저금통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광주시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스마트공장을 신축하거나 고도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8개 기업에 신규 구축, 고도화 등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일괄 지원했다. 올해는 기초단계 2000만원 이내, 고도화 5000만원 이내로 단계별 차등 지원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지역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만개 이상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수준은 최대 7000만원, 고도화는 최대 4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부담(총사업비의 50%)을 덜어주기 위해 총사업비의 20%(최대 5000만원)를 매칭해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환한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스마트 공장 저변 확대는 물론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16일부터 15일간 접수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3월2일까지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광주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공모를 할 예정이며,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을 마치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등록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원 관련 상담과 설명회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4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68개 업체에 인건비 58억원과 4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